



사이버 공간에서 회원간 친목도모 활성화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확대 계획

양찬석/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세난 달 8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의 정기총회 및 12대 회장 선거가 있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날 회장 선거에서 회원 다수의 지지로 회장에 당선된 양찬석 신임 회장은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주)에이팩스디엔컴의 경영을 맡아 국내 패키지디자인산업 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다.

양찬석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먼저 장호영 전임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역대 임원진과 회원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양 회장은 1978년 해태제과 디자인실에서 패키지디자인 업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디자인센터 제작본부장을 거쳐 1991년 에이팩스디엔컴을 창업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디자인업계에만 23년여를 종사해 왔으며 협회에서는 6년 간 부회장으로 있는 동안 핵심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다.



“오랜 기간 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패키지디자인 업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업계가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라며 협회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사업방향 설정의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미흡한 홈페이지 기능을 활성화해 업계의 현안을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므로 서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 활성화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일단 임원진과 회원들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면 회원 단합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임기간 회원 상호간에 단합에 힘쓰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그간 미흡했던 사업인 월례세미나를 회원들만의 모임이 아닌 관련 업계에 종사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연사로 초빙해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협회 사업의 확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인 ‘팩스타(PACKSTAR)’ 행사는 협회의 가장 큰 사업인 만큼 현재 수도권에 편중된 출판작들을 지방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행사 규모의 확대를 시도하겠으며,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 또한 그동안 총회와 병행해 실시하다보니 권위가 반감되는 바가 있어 별도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회원들 뿐만 아니라 포장에 관련한 많은 인사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가 되도록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 소개했다.

“현재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협회 운영에 세부적인 방침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두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으로 조직확대를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들의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곧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회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비쳤다.

더불어 디자인 관련 단체 및 포장 관련 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대정부적인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폐쇄적인 단체가 아닌 열린 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간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은 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했다. 패키지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업계에 널리 알려 발전을 꾀해야 할 노하우도 자신의 것만으로 감추는 일이 많아,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요즘은 패키지디자인 분야도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진출해 이러한 현상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양찬석 회장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자신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친구처럼 회원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여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패키지디자인분야도 젊은 패기에 찬 디자이너와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가진 노련한 디자이너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 무겁고도 힘든 임무는 양찬석 신임 회장에게 주어졌다.

양 회장의 바람처럼 패키지디자인협회가 회원에게 친구같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한다. 인디언 한 종족의 언어로 친구는 ‘내 고통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이라고 했다. 양찬석 회장이 임기동안 회원들의 고통을 등에 지고 가는 친구처럼 회원간의 단합에 한 몫 해 주기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협회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한다. ☐

박기진 기자